

1. 참가 활동 내용(사진 포함 가능)

처음 해외현장조사 프로그램에 지원할 당시 내가 생각한 주제는 우리나라와 베트남의 관광 산업 비교였다. 특히 크루즈 산업에 집중해 조사할 계획이었다. 베트남의 크루즈 산업은 하롱베이 등 그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반면, 국내의 여수나 제주도의 크루즈 산업은 일정 수준에서 성장이 멈춰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베트남은 해안가를 중심으로 길게 늘어져 있다. 해양 관광 산업을 개발하기 위한 비슷한 조건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원인에 대해 분석해보고자 했다. 하지만 확정된 일정을 보니 하롱베이의 크루즈 산업을 조사하는 것은 어려워 보였다. 하롱베이 크루즈 투어를 하려면 하루를 꼬박 투자해야 했다. 하지만 짜여진 일정은 하롱베이 투어가 불가능했다. 결국 나는 하노이에 도착해서 조사 주제를 수정해야 했다.

베트남 여행지를 조사하다 보면 한 번쯤은 '베트남 3대 여행지, 북부의 하노이·중부의 다낭·남부의 호치민'이라는 말을 듣게 된다. 마침 나는 작년 3월에 다낭을 방문했었고, 베트남 관광 산업의 성장을 실감했다. 본 해외현장 조사를 지원하며 계획했던 조사 주제도 다낭 여행에서 느낀 점을 바탕으로 설정했을 정도로 다낭을 여행하며 느꼈던 베트남 관광 산업의 성장은 눈부셨다. 미케 비치 등 휴양지로서의 조건을 아주 잘 충족했을 뿐 아니라 주변 관광지와의 접근성도 좋았기에, 나는 다낭을 여행하면서 다낭 여행의 키워드를 '힐링'이라고 생각했다. 마침 위에서 언급한 베트남 3대 여행지 중 두 번째 도시를 방문할 기회가 생겼고, 다낭에 이어 하노이 여행을 나타내는 키워드를 선정하는 것으로 본 조사의 주제를 수정하였다.

조별 일정의 1일차에는 먼저 '분짜 흐영리엔'에 가서 점심 식사를 했다. 원래 박물관에 가려고 했으나,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배를 먼저 든든히 채웠다. '분짜 흐영리엔'은 오바마가 방문하여 분짜를 먹은 식당으로 유명하다. 하노이가 정치의 중심지이다 보니, 오바마 전 대통령도 하노이에 왔다가 식사를 했던 것 같다. '오바마 세트'가 있길래 시켜 먹으려다가 메뉴판을 가만히 들여다보니, 세트 구성 메뉴를 각각 단품으로 주문해도 같은 가격이 나오길래 조원들과 각자 먹고싶은 음식을 단품으로 주문해서 먹었다.

식사를 마친 이후에는 베트남의 역사를 한눈에 개괄할 수 있는 박물관을 답사했다. 국립 베트남 역사박물관과 혁명박물관은 도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있었다. 역사박물관에서 입장권을 구매하였는데, 국제학생증 할인이 가능하길래 나를 비롯한 몇몇 조원들은 아주대학교 학생증으로 할인을 받았다. 입장권 한 장의 양쪽에 역사박물관과 혁명박물관 티켓이 붙어있으니 떨어지거나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역사박물관 입구에 한국어 안내 책자가 있어 박물관 전시 구조를 쉽게 파악할 수 있었다. 베트남어, 영어와 더불어 한국어 책자가 따로 마련되어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역사박물관은 전근대 시기의 베트남 역사를 유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었다. 사진과 그림 등 시각 자료도 상당수 전시되어 있어서 전근대 베트남 역사를

파악하기 용이했다. 하지만 전시물에 영어 설명이 첨가되어있지 않아 시각 자료로만 정보를 파악할 수 있었다. 다행히 베트남 전근대 역사는 중국과의 상호 작용, 특히 중국의 정복 활동와 이에 대한 베트남의 저항이 그 주를 이루었기에 시각 자료에 한자가 다수 등장하였고, 아는 한자를 띄엄띄엄 읽으며 눈치껏 정보를 파악할 수 있었다.

혁명박물관에서는 호치민 집권 이후의 베트남 근대사를 배울 수 있었다. 특히 혁명박물관에는 전시물에 영어 설명이 첨가되어 있어서 정보를 수월하게 받아들일 수 있었다. 사실, 역사박물관에서 혁명박물관으로 넘어왔을 때에는 박물관 개장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세세하게 살펴보는 못했다. 하지만 시각 자료와 그 아래의 간단한 영어 설명을 읽어보면, 베트남의 근현대사는 박물관 이름에 걸맞게 가히 투쟁과 혁명의 시대라고 할 만했다.

이후 성 요셉 성당에 방문했다. 처음 성당을 보고 든 느낌은 '중세 유럽의 드라쿨라 백작이 살 것만 같은 성당'이었다. 동남아시아의 건축물 느낌보다는 옛날 유럽풍의 건축물 느낌이었다. 성 요셉 성당은 프랑스가 하노이 점령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성당이다. 따라서 유럽의 고딕 양식과 베트남 전통 양식이 혼합된 건축 양식을 보여준다. 단순히 건축 양식만 혼합된 것이 아니다. 성 요셉 성당은 프랑스의 베트남 식민 지배를 상징하는 대표적 건축물로, 베트남의 역사적 상처를 상징하는 건축물이다. 이런 상처를 나타내는 성당 주변으로 다양한 음식점과 카페 등이 들어서며 하노이의 핫플레이스로 자리잡은 현실이 아이러니하게 느껴졌다. 또한 성당 주변에서 제기차기 비슷한 놀이를 하며 웃고 떠드는 아이들, 민족의 상처를 나타내는 공간에서 민족의 희망이 웃으며 뛰어노는 광경을 보며 묘한 기분이 들었다. 구상의 시 「초토의 시 1」이 생각났다.





성 요셉 성당을 구경한 후, 조원들과 마사지를 받았다. 오바마 분짜를 먹은 식당부터 박물관까지, 박물관에서 성당까지 계속 도보로 이동했고, 일정 3일차였기에 피로가 누적된 상태였다. 유명하다는 마사지샵에 가서 조원들과 피로를 풀었다. 피로가 풀리자 배가 고파와서 현지에서 유명하다는 쌀국수 집에 갔다. 문재인 대통령이 방문했다는 식당이었다. 오늘 간 식당 두 군데가 모두 한미 국가 정상들이 방문했던 식당이라는 점이 새삼 신기하게 느껴졌다. '하노이가 베트남 정치의 중심지가 맞긴 한가보네'라는 생각이 들었다. 조원들과 저녁 식사를 간단하게 마치고 그랩을 타고 기숙사 근처 마트에서 내려 장을 본 뒤 복귀하였다. 기숙사에서 조원들과 맥주 한잔 하면서 오늘의 활동들을 피드백하고 내일의 일정을 점검하며 하루를 마쳤다.

조별 일정 2일차에는 찐꾸옥 사원과 호치민 묘소, 호치민 박물관과 주석궁 등을 둘러보았다. 문묘, 하노이 민족학 박물관 등 전근대 시기의 베트남 역사를 보여주는 관광지는 이미 단체로 둘러보았기에 근현대 시기의 관광지를 위주로 살펴보았다. 단

체 일정이 아닌 조별 일정이기에 평소보다 조금 느즈막히 일어나서 그랩을 타고 찐꾸옥 사원으로 이동했다. 찐꾸옥 사원은 6세기 경에 세워진 사원으로, 띠이 호수 중앙에 있는 김응우 섬에 위치하고 있다. 호안 끼엠 호수의 응옥션 사당과 지리적 특징이 비슷했다. 사원은 전체적으로 붉은색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사원 안쪽에는 불상이 있고, 제법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었다. 베트남이 과거부터 줄곧 불교 문화권이었음을 실감했다.

찐꾸옥 사원을 나와 도보로 호치민 묘소까지 이동했다. 호치민은 베트남 전국민의 영웅이기에 그의 묘소에 입장하는 과정도 엄격했다. 짐을 검사하다가 조원이 라이터를 뺐겼다. 화기류나 도검류는 소지가 불가한 듯했다. 또한 관람 시에는 규정과 예의를 지켜야 했다. 묘소를 기준으로 일정 거리에는 노란 선이 그어져 있었는데, 그 금을 넘어가면 경비를 서던 군인들이 주의를 주었다. 나도 사진을 찍다가 노란 선을 넘어가서 경비병으로부터 주의를 받았다.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팔짱을 끼면 주의를 주는 등 관람 예절이 다소 빠빠한 듯했다. 한 한국인 아주머니께서는 가이드에게 경비병들을 가리키며 '인형 아니냐, 인형인 줄 알았다'고 할 정도로 군인들은 각이 선 자세로 경비를 서고 있었다. 호치민 묘소 앞에 위치한 바딘 광장에는 한 할아버지께서 기계로 물을 뿌려가면서 청소를 하고 계셨다. 그 모습을 보며 그동안 보았던 하노이 거리의 지저분한 모습이 떠올랐다. 조별 일정 1일차에 가족 슬리퍼를 신고 다녔는데, 도로가 얼마나 지저분한지 발뒤꿈치가 시커멓게 변해 있었다. '거



리의 위생은 그렇게 낙후되어 있는데 호치민 묘소 앞 광장은 저렇게 물을 뿌려가면서 빠빠 청소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 광경과 함께 날 선 경비, 빠빠한 입장 절차와 관람 예절 등을 통해 베트남 정부와 국민들이 호치민을 얼마나 존경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지를 호치민 묘소를 관람하는 동안 간접적으로나마 느낄 수 있었다.

호치민 묘소를 관람한 후 뒤편의 호치민 박물관도 잠깐 관람하였다. 기숙사 복귀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빠르게 둘러보고 나왔다. 또한 나오는 길에는 호치민 묘소 옆에 위치한 주석궁도 보았다. 우리가 갔을 당시 주석궁은 입장이 불가하여 밖에서 바라보며 사진을 찍는 것으로 만족해야만 했다. 기숙사 도착까지 시간이 조금 남아서 식사를 했다. 일정 내내 쌀국수, 분짜 등 면요리만 먹어서인지 속이 금방 꺼지고 포만감을 느낀 적이 없었다. 양식 음식점에 들어가서 파스타와 스테이크를 먹고 복귀 시간 한 시간 전에 그랩을 잡아 탔다. 우리는 여유있게 출발했다고 생각했는데 길이 너무 막혀 아슬아슬하게 도착했다. 마지막까지 스릴 넘치는 일정이었다.

이렇게 하노이에서의 일정이 끝났다. 3박 5일이라는 단체 일정과 조별 일정동안 내가 생각한 하노이 여행의 키워드는 하노이를 대표하는 수식어와 마찬가지로 '역사와 정치'였다. 하노이 관광에 하롱베이를 추가하면 그 키워드가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하노이 관광지 전체를 아우르는 테마는 '역사와 정치'이다. 일정 내내 베트남과 한국의 역사가 상당히 비슷하다고 느꼈다. 전근대 시기에는 중국의 침략으로부터 나라를 지키려는 투쟁이 역사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한 유교와 불교 문화, 젓가락 문화 등 민족적 정체성 역시도 비슷하다고 느껴졌다. 근대 시기에는 각각 일본과 프랑스의 식민 지배를 받았으며, 남북 분단의 역사까지도 흡사했다. 하노이 곳곳에서는 산업화 시기 대한민국의 모습이 보였다. 아마 하노이를 찾는 한국 사람들은, 하노이에서 과거 우리나라의 모습이 보여 하노이를 찾는 것은 아닐까 생각했다. 정치적으로는, 물론 이념은 다르지만, 베트남은 통일을 이루어냈다. 베트남을 보며 우리가 배울 점은 배우고, 부족한 점은 경각심을 가지고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론 하노이가 베트남의 정치와 역사의 도시라고 일컬어지기는 하지만, 한국 사람들에게는 다른 의미에서 정치와 역사의 도시가 아닐까 생각해본다.

2. 참여 소감 및 향후 계획

먼저, 이번 해외현장조사를 통해 역사와 정치를 비롯한 베트남 문화의 전반에 대해 학습할 수 있었다. 조별 일정 외에도 단체 일정 중 베트남 학생들과의 문화 교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베트남 문화를 이해하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되었다. 또한 하노이 대학교의 한국어학과 교수님께서 베트남이라는 국가에 대한 개괄을 해주셨는데, 그 수업과 질의응답 역시도 베트남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또한, 개인적으로 사색을 많이 하게 되는 일정이었다. 조별 주제와 개인 주제 외에도 베트남이라는 국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처음 하노이에 도착했을 때에는 교통 상황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하루 이틀 하노이 시내를 돌아다니다 보니 이것저것 많은 생각이 났다. '파란 번호판을 쓰는 차량은 공관 차량으로 보이는데 왜 한 대도 빠짐없이 도요타 사의 차량일까?', '베트남은 자동차 회사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현대차는 베트남에서 어느 정도 위상일까? 벤츠나 BMW와 비교하면 어느 정도일까?' 등 베트남 전반에 관한 질문부터 '사람이란 무엇인가', '베트남의 젊은이들, 내 또래들은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아갈까?'와 같은 질문들까지 많은 생각이 들었다. 전자가 국제학부 학생으로서의 질문이라면 후자는 인문학부 학생으로서의 질문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이처럼 이번 해외현장조사는 단순히 조별, 개인 주제에 대한 조사와 지식 습득 외에도 소속 학부 학생으로서의 사고 방식을 키우는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사고 방식의 습득은 내가 설정한 진로에의 취업에도 큰 힘이 된다고 생각한다. 내가 설정한 진로에서 나에게 요구하는 역량은 서로 다른 문화와 사람에 대한 진정성 있는 이해가 기본이 되기 때문이다.

이번 해외현장조사를 통해 좁게는 베트남이라는 국가를 경험하고 배울 수 있었으며 넓게는 인간과 문화를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해보았다. 얼마 남지 않은 학교 생활이지만 이번 경험은, 특히 하노이에서 했던 나와외의 대화는, 국제학부 학생으로서와 인문학부 학생으로서의 역량 증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이번 경험이 내가 목표로 하는 곳에서 원하는 글로벌 마인드를 갖출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

마지막으로, 하노이와 다낭을 다녀왔으니 조만간 호치민도 다녀와서 호치민의 여행 키워드를 나름대로 생각해볼 계획이다.

3. 프로그램 주관 기관 및 대학에 바라는 점

일정의 첫 날과 둘째 날을 단체 일정으로 구성하여 짜임새 있는 일정을 소화할 수 있었다. 일정 전체를 조별 일정으로만 구성하면 일정의 허술함이나 안전 사고 등 그 부작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동시에 아쉬운 점이기도 하다. 우선, 각자 개인 주제와 조별 주제, 두 가지 주제를 조사하여야 하는데 그 시간이 다소 부족했다. 그리고 일정이 너무 빡빡했다. 조식을 먹고 집합 시간에 맞추려면 아침 6시에는 일어나야 했다. 단체 일정 기간에는 수학여행을 온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일정이 빡빡했다.

교수님 한 분과 조교 선생님 한 분, 총 두 분이 우리를 인솔하셨다. 조별 일정 기간에는 조금 덜했지만, 단체 일정 기간에는 그 많은 인원을 두 분께서 통제하시기에 다소 버거워 보였다. 인솔 인원을 늘렸으면 한다.

국외 대학교와의 연계 프로그램이 처음이라고 들었다. 처음이라 아쉬움이 남기도 했지만, 문화 교류의 측면에서 그 장점이 돋보였다. 또한 지원 요건이 까다롭지 않은 점도 이 프로그램의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앞으로도 국외 대학교와 연계하는 문화 탐방 프로그램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한다. 귀중한 경험을 하게 해주신 아주대학교 국제학부와 하노이대학교 한국어학과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

4. 다른 학우 및 후배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

가족이나 친구 등 주변의 말을 들어봐도 우리 학교만큼 해외 교류 프로그램이 활성화된 학교는 없는 것 같다. 특히 이 프로그램은 앞서 말했듯이 지원 요건이 까다롭지 않기에 상대적으로 쉽게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얻어가는 것도 많은 프로그램이다. 나는 이런 프로그램을 너무 늦게 알게 되어 후회스럽다. 다른 학우들과 후배들은 이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학교에서 지원해주는 해외 교류 프로그램들을 찾아서 지원했으면 한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이런 교류 프로그램들을 통해 다른 학우들과 후배들이 다양한 경험을 했으면 한다. 이런 경험 하나하나가 나만의 스토리가 되고 경쟁력이 된다고 생각한다. 단순히 추억이 되거나 취업에 도움이 되는 것만이 아니라, 견문을 넓혀가며 스스로 성장하는 과정이 된다고 생각한다.

개인 주제든 조별 주제든, 스스로 연구 주제를 설정하고 해외에서 그에 대한 조사 활동을 하는 것은 흔치 않은 기회이다. 개인 주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는 자립심을 기를 수 있고 조별 주제를 조사하는 과정에서는 집단 내에서 의견을 조율하는 방법 등, 단체 생활을 배우고 공동체 의식을 기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프로그램은 한 사람으로서도 성장하며 동시에 사회의 일원으로서도 성장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이다.